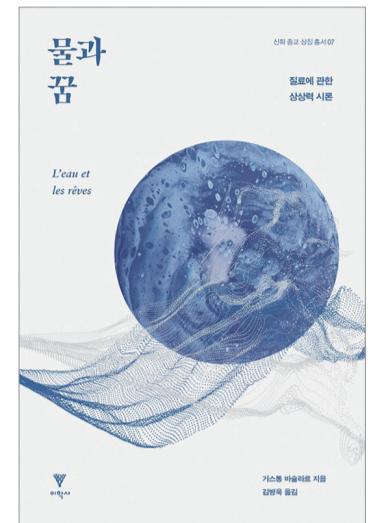


12 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⑦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물과 꿈』



가스통 바슐라르는 이성이 중심이 되던 사회에서 상상력과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언스플래쉬)



가스통 바슐라르는 프랑스의 과학철학자이자 문학비평가이며 시인이다.

미를 띠게 된다. 예를 들어 물이라는 물질은 형태적 이미지로만 파악 하려 한다면 단순히 고정된 형태가 없는 물질이다. 물은 그것을 담는 그릇에 따라 형태가 변화한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물을 보면 단순한 외형적 모습으로 인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봄날에 흐르는 시냇물을 경쾌한 음악과 같은 이미지를 주는 반면에, 폭풍우 속에서 포효하는 바닷물을 거대한 산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런가 하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물은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기도 한다. 동일한 물질이라도 이렇듯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전혀 다른 속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이미지의 물질성은 그 속성상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고대 인류의 조상들이나 먼 미래의 후손들과 동일한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질로 인해 우리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혀 새로운 개념의 물질적 이미지는 그것이 우리의 무형적 정신활동인 상상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과 꿈』의 또 다른 장점은 혁신적인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전개가 극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는 데 있다. 바슐라르는 어려운 철학적 용어가 아닌 수많은 문학작품의 인용과 일상 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을 상상력의 세계로 이끈다. 초판이 출판된 지 80년 가까이 되는 이 책이 아직도 프랑스에서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라는 사실은 이 책이 얼마나 상상력 연구의 기본서 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질의 바다에서는 어두운 식물이 자란다. 물질의 밤에는 검은 꽃들이 피어난다. 그 꽃들은 이미 자신의 부드러움과 자신의 향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가 말하는 상상력의 세계



홍명희
프랑스어학과 교수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가히 상상력과 이미지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 능력이자 소중한 능력이고, 이성의 활동조차도 사실은 상상력의 활동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도처에서 상상력의 소산인 창의성과 독창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상력과 이미지가 처음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왔던 것은 아니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상상력과 이미지를 인간의 정신활동 중에서 가장 무익한 것으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하고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왔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서구 문명의 발달로 대표되는 인류 문명의 발달은 오직 이성에 기반을 둔 객관적 사실만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즉 합

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로 인정하는 합리주의는 물질문명을 발전시키는 데는 큰 공헌을 하였지만, 그 반대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합리주의의 발달은 인간 이성 이외의 가치들, 즉 인간의 상상력이나 감성과 같이 인간의 행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비합리적이라는 명목하에 인간 삶의 전면에서 몰아낸 것이다. 그 결과, 상상력과 이미지는 인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성의 방해물로써 언제나 이성과의 대립 과정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주변적 가치로서만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 과학의 세계보다 이미지와 상상의 힘을 기반으로 하는 주관적 상상력의 세계가 우위에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상상력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이룩한 사람이 바로 바슐라르이다. 상상력과 이미지의 위상을 기준의 이성의 종속 물 내지는 방해물로부터 인간 활동의 근원적 원천으로까지 혁신적으

로 끌어올림으로써 상상력과 이미지의 위상을 전복시킨 바슐라르는 가히 20세기의 코페르니쿠스라 할 만하다. 그의 업적은 20세기 중반의 문학비평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전 인문학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다. 바슐라르가 상상력과 이미지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현실의 세계와 꿈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성이고, 이 감성의 세계가 우리가 막연하게 짐작해 왔던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 감성의 세계는 상상력과 이미지에 의해 만들어지고 영향을 끼치는 세계, 후에 그의 제자 질베르 뒤랑이 ‘상상계(l'imaginaire)’라 부른 세계다.

바슐라르는 1940년 『불의 정신분석』을 필두로 해서 연속해서 『물과 꿈』, 『공기와 꿈』, 『대지와 휴식의 몽상』, 『대지와 의지의 몽상』을 발표하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상상력 연구를 세상에 내놓는다. 오늘날 ‘상상학 연구’라 불릴만한 상상력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은 모두 이 바슐라르의 저서들에 빚지고 있다. 후에 그는 『공간의 시학』, 『몽상

의 시학』, 『초의 불꽃』 삼부작으로 상상력의 형이상학을 완성한다.

『물과 꿈』은 바슐라르가 상상력 연구를 시작하면서 펴낸 두 번째 저서이다. 상상력 연구의 거대한 물길을 바꾸어놓은 시작은 『불의 정신 분석』이지만 바슐라르를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물과 꿈』부터 시작하기를 권한다. 그 이유는 『불의 정신 분석』은 과학철학자이기도 한 바슐라르의 과학철학적 사유의 연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약간 낯선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물과 꿈』은 그가 이미지와 상상력에 대한 뚜렷한 주관을 세운 뒤에 집필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슐라르 사상의 전체적인 양상을 짐작해보기에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바슐라르 초기 사상의 핵심은 이미지의 물질성이다. 대상의 물질적 성질에 집중하는 상상력은 물질적 이미지(또는 질료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물은 이러한 상상력이 활동하기에 가장 유리한 재료이다. 우리가 대상의 물질성에 주목하게 되면 세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